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 산청군 폭우피해 현장점검

등록 2025.07.24 18:19:11



[진주=뉴스시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산청군 신안면 청현배수장 점검(사진=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제공).2025.07.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스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2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산청군 관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와 산청군 관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41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약 75억원, 복구 소요액은 약 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경남지역 50여 명의 직원 및 드론 5기를 지원받아 저수지 76개소, 배수장 57개소의 피해현황 전수조사를 마쳤다. 향후 태풍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용배수로 현황조사 및 복구도 병행하고 있다.

진주산청지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4개소, 배수장 5개소의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8월 중순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신속한 시설물 피해복구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재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 향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